



오페라 '순이삼촌' "망각을 일깨운 콘텐츠"



황학주의 제주살이 (63)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제1회 '세상을바꾼콘텐츠' 선정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지평 넓혀"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아트센터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4·3장작 오페라 '순이삼촌'이 제1회 '세상을바꾼콘텐츠'의 '망각을 일깨운 콘텐츠상'에 선정됐다.

한국 문화 콘텐츠 비평 협회(KOCCCA)(회장 임대근, 이하 콘비협)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중의 삶과 문화를 가치 있게 표현한 문화콘텐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전문 문화 비평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해 선정한 제1회 '세상을바꾼콘텐츠' 수상작은 ▷망각을 일깨운 콘텐츠(과거 문제의 동시대화) 부문에 4·3장작오페라 '순이삼촌'(제주4·3평화재단)을 비롯 ▷차별에 저항한 콘텐츠(시대정신의

구현)=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NA) ▷미래를 꿈꾸는 콘텐츠(기술적 진보의 성과)=인공지능 기반 공연 '넌댄스 댄스'(국립현대무용단) ▷대중이 감동한 콘텐츠(탁월한 스토리텔링의 대중적 수용)=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tvN) ▷주목할만한 비평=위근우의 리플레이, "멀고 낯선 땅 '수리남'..."(위근우/경향신문) 등 모두 5개 작품이다.

4·3장작오페라 '순이삼촌'은 2020년 제주에서 첫선을 보인 후 지난해 제주와 경기아트센터에서 재연한데 이어 올해 9월 처음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을 만났다.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오페라로 창작해 지역 문화콘텐츠라는 한



지난 9월 세종문화회관 합창 공연 모습.

계를 넘어 꾸준히 성장시켰으며,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4·3장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오페라의 기본 장르에 충실하면서도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4·3이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공감해야 하는 역사를 일깨웠다"고 평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장작오페라 '순이삼촌'

이 더 많은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1회 '세상을바꾼콘텐츠' 시상식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3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콘비협은 2019년 창립된 문화콘텐츠 비평가 모임으로 현재 학계와 산업계, 언론계에 종사하는 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여행자의 산문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온 한국 어과 교수와 점심을 먹으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강연을 갔을 때 백야의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자 자정 가까운 시간에 함부르크 항에 데려다 주고 혼자 밤 산책을 하는 동안 차에서 기다려준 사람이 다. 그런 인연으로 제주에서 반가운 해후를 하게 된 그는 여행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여행이야말로 자기 삶의 본편이며 나머지는 예고편이거나 미완성의 일기 같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서문만 있고 본문이 없는 책. 그래도 충분히 책이면 책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 내게는 어쩔지 연속적이지만 미완성인 조각난 글, 그런 삶의 서문에 해당하는 게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완성 자체로 그냥 좋은 것이다.

삶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불만족스럽고, 금방 사라지고 마는 추억들은 우리의 삶을 '여행스럽게' 해주는 요인일 것이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보면 만족이란 인생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사실 못다 한 게 있어야 살 만 한 일이기도 하지 않던가. 1차적으로 여행은 단순히 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언가가 그곳으로 옮겨지는 행위이다. 옮겨진 나의 무언가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행 자체는 그다음 문제다. 풍경, 건물과 공간, 사물, 사람들, 특별한 경험 등등은 그 첫 번째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걸 그 사람의 사고와 능력에 따라 다른 에너지가 된다.

일본의 세계적인 화가 구마가이 모리카즈처럼 여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말년의 30여 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자신의 집과 정원에 칩거한 채 주변의 동식물을 그렸다. 그는 기쁘게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버린 것이다. 현대와 과거가 기억 속에서 공존하는 것 같았다. 여행도 여행하는 것과 여행하지 않는 것이 여행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따지고보면 인생이란 모든 것이 여행인 셈이다.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는 연락두절 상태, 그거야말로 여행 자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그는 또 "제주는 매우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장소이며, 특히 꽃자왈과 오름을 볼 때마다 숨이 멎는 듯했다."고 말했다. 세발 제주 여행이 여기서 끝나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좋은 곳을 두 번 세 번 갈 수 있지만 처음 갔을 때의 느낌은 딱 한 번뿐이다. 아마도 그런 의미였으리라. 그리고 그 말의 뜻은 제주는 정말 한번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곳이라는 말과 같다. <시인>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도시 우호전

9-15일 서귀포예당... 6개 도시 서화·특산품 선배

서귀포시가 '함께 걸어 온 30년, 함께 걸어 갈 30년'을 주제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도시 우호전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9-15일 서귀포예당의 전당 전시실에서 '서귀포시와 중국 교류 도시 우호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와 제주주중국총영사관이 전시회를 공동 주최하며 중국 교류도시 6곳,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중국미술협회, 제주한라대학교 공자학원이 동참한다.

행사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예·그림·특산품 전시, 중국 교류도시 홍보부스 및 중국 문화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전시 작품은 베이징 미술관 장인 스제홍 작가를 비롯 중국미술협회, 중국 교류도시, 서귀포시 미

술협회의 작가들이 내놓은 75점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11일 주말에는 제주한라대 공자학원이 중국 전통문화인 전지(종이 오리기), 중국 팔찌 만들기, 번견 및 중국 의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참가자 선착순 200명에게 판다 인형과 경극 인형 냉장고 자석 등 중국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1994년부터 하이난성 산야시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심정시, 항저우시, 친황다오시, 룡커우시, 상해충밍구 등 현재 6개 도시와 다양한 교류사업을 벌이고 있다. 백금티자



12명의 작가가 전하는 자연의 향기

사진공감 사진전 '향기' 내년 1월까지 시즌1·2로

자연의 향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네이버밴드 사진공감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꽃향기를 맡으며 웃음으로 이겨내 보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한 회원전이다.

'향기'란 이름을 달고 서귀동 금정동 커피 갤러리에서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전시는 이달 말까지 시즌1 '공간'에 이어 내년 1월 6일부터 31일까지 시즌2 '꽃들의 속삭임'이란 부제를 내걸고 관람객을 맞는다. 영롱한 아침이슬과 운해, 노을속 해바라기를 비롯 설중화, 숲과 바다, 봄과 가을을 넘나드는 공생과 혼돈 속 어우러진 빛의 하모니 등 12명의 작가가 앵글에 담



오수진 작 '봄의 향기'

은 21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사진공감은 "향기는 옛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때론 진한 그리움을 연상 시키기도 한다"며 "자연의 향기, 꽃들의 향기로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 때마침 가슴에 잔잔한 감동의 향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전시엔 권기갑, 고창주, 구길현, 김광태, 김재선, 박천선, 서정희, 신미영, 이규영, 오수진, 은기호, 하영삼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갤러리밴드와 전시대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023년 갤러리 밴드와' 전시대관 신청을 이달 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 제한

이 없다. 단 올해 전시한 참여자와 단체는 제외다.

전시기간은 내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며, 매 전시기간은 30일 정도가 기준이다. 대관 희망자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관료는 무료다. 오은지기자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2023년 왕금연휴 전세기 떠나요! 마닐라닐라닐라

제주 ↔ 필리핀/마닐라 3박4일

관광올포함 125만원 (미취학아동: 85만) | 골프올포함 159만원 (54H/3조이상 단독) | 항공권 69만원 (선착순 30명)

출국 22:30-01:00 | 귀국 17:00-21:30 **현지 추가비용 없음!!**

1차 (구정연휴) 01.22(일) ~ 01.25(수)	4차 (6월연휴) 06.03(토) ~ 06.06(화)
2차 (겨울방학) 02.24(금) ~ 02.27(월)	5차 (추석연휴) 09.30(토) ~ 10.03(화)
3차 (4월휴가) 04.06(목) ~ 04.09(일)	6차 (크리스마스) 12.22(금) ~ 12.25(월)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사항: (공통)항공료, 5성급호텔, 차량료, 마사지(2회), 한국어가이드,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팀 1인 | (관광)식사, 입장료 | (골프)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 클럽식&셔츠 | (전세기)경우 양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